



8지역 클럽 회장단 기념촬영 (총재이취임식)

새로운 도약에 도전하는, 작지만 생기있는 서울늘푸른 로타리클럽



글. 서울늘푸른RC 회장 **한백현**

서울늘푸른RC는 이름 그대로 늘 푸르름을 모토로 하는 작지만 내실 있는 클럽입니다.

최근 2-3년간의 깊은 슬럼프에서 벗어나 다시 예전의 푸르름을 되찾기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서울늘푸른RC는 2003년 1월 17일 이동건 전RI회장님과故이창우 지구 기획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님 등 3분에 의해 기존의 서울동대문RC를 재건하는 방식으로 창립되어 활동하다가, 2004년 7월 1일 서울늘푸른로타리클럽으로 클럽명을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 3월 현재 서울늘푸른RC의 등록회원은 23명, 늘푸

른 울타리 위성클럽의 등록회원이 9명으로 전체 회원은 32명이며, 부산에서 활동하는 북부산RC와 자매결연을 맺고, 친밀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주로 대학교수, 변호사 및 회계사 등의 전문가들과 기업체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전문성을 살려 로타리의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늘푸른RC는 주회를 월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조찬으로 진행하는데 주로 외부의 저명 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듣고 자유롭게 의견 교환함으로써 회원들의 전문성과 교양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의 강의 주제를 보면 주로 환경보호 분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이슈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그리고 취미활성화를 위한 사진 및 골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주회는 수서에 있는 하상 장애인복지관에서 점심배식 봉사 활동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스즈아울러 2개월에 한번 꼴로 저녁 주회를 열어 회원들간의 격의 없는 대화의 마당을 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골프행사, 회원 회사탐방, 부부동반 음악회 관람 및 번개모임 등을 통하여 상호 친목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실시하는 배식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어려운 삶 속에서 거동마져 불편한 분들의 식사와 설거지를 도와드리면서 봉사의 가치와 로타리 정신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대부분 전문직 직장인들이어서 시간 내기가 어렵지만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로타리안으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결성된 울타리 회원들도 배식봉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서울늘푸른RC는 이순동 총재님의 “Family Together” 정신에 적극 공감하여, 지난달 회원들의 배우자로 구성되는 늘푸른 울타리 위성클럽을 창립하였습니다.

초기 인원은 9명으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인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부부동반으로 주회참석은 물론 울타리 회원들끼리 음악회 등 문화행사, 봉사활동 및 친목교류 등을 통해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는 늘푸른RC에 입회한지 3년여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디만 시간이 갈수록 초아의 봉사 정신을 본질적 가치로 삼고 있는 로타리아말로 인류의 삶을 밝고 아름답게 그리고 희망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푸른RC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들간의 스킨십을 더욱 강화하여 만나면 만날수록 즐겁고 따뜻한 클럽이 되도록 분위기를 한층 UP시켜 늘 푸르름을 잃지 않는 로타리클럽이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서울늘푸른 울타리 위성클럽 창립기념사진



지구대회에서 8지역 클럽 회장단을 소개하는 송창섭 8지역대표

사람을 건설하는 서울남대문로타리클럽

글. 서울남대문RC 회장 남연송



저희 서울남대문로타리클럽은 1983년에 창립되어 34주년을 자랑하며, 이승우, 전순표 두 분의 역대 총재님 배출해낸 클럽입니다.

과분한 직함을 갖고 부담으로 시작해서 벌써 반년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멋진 분들 속에서 잘 해가고 있는 것은 모든 분들이 로타리를 사랑하고 배려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작게나마 웰빙 파트너인 서울남대문로타리클럽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클럽의 최근 대표적인 봉사 사업은 '귀를 기어주세요'라는 청소년들의 외로움과 답답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방학 때마다 연극 연습을 하여 무대 위에 올립니다.

목적은 청소년이 올바르게 잘 자라야 우리의 미래가 밝기 때문입니다. 불우청소년가정과 소외가정의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더욱 갈 곳을 잃기에 방학시간을 이용해 자존감과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늘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고민하기에 국군수도병원에 그랜드피아노와 그림 기증식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매클럽으로 대만과 일본 자매클럽이 있어 국제봉사 사업을 하고 있고 PHS는 두 분이 하셨습니다.

회원들과 친교를 두텁게 한 행사로는 시인이 계시기에 시낭송 주회를 열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뜨거웠던 평창올림픽 서울남대문로타리클럽도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클럽은 평창올림픽의 개최를 앞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의논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평창올림픽 개막식이전에 세운 평화의벽을 서울남대문로타리클럽 회원 개개인의 이름으로 기부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함께 관람하는 서울남대문RC 회원들



평화의 벽에는 서울남대문로타리 회원님의 평화를 기원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두번째, 강원도민회 회장이신 전순표 전총재님께서 성화봉송주자로 참가하셨습니다.

세번째, 가장 비인기종목, 소외된 종목에 단체 관람을 하였습니다. 바쁜 개인 일정을 뒤로하고 모여서 함께 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았던 평창올림픽 봉사는 즐겁게 막을 내렸습니다.

평화의 벽 기부, 성화봉송, 비인기종목 관람하기 이 모두는 서울남대문로타리클럽,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를 하나로 모으는 나 자신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저희 서울남대문 클럽도 계속해서 발전해갈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봉사의 한뜻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배려와 봉사, 품격 있는 서울새신라로타리클럽에서 멋진 인생을..



글. 서울새신라RC 회장 이관제

우리 클럽은 지난 4월 13일 창립 23주년을 맞았습니다. 1995년 창립 당시, 로타리 사상 최대 창립회원수(143명)를 기록하여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화려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새신라의 큰 자산은 김재기 초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클럽 우선정신과 사명감입니다. 23대 회장이 나오기까지 단 한 번도 중임하는 경우가 없이 순차적으로 그 책임을 마다하지 않는 전통 또한 큰 자산입니다.

그만큼 끈끈한 우정과 단합을 바탕으로 활기차게 로타리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원 영입과 유지라는 제1목표에 집중하며, 무료급식소 안나의 집 봉사자를 중심으로 위성클럽을 조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회기에 세운 목표 중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증강(7명) 및 재단기부(PHF 5구좌)
2. 만찬주회 및 여행 등 친목 도모 행사
3. 안나의 집 후원과 봉사, 위성클럽화 착수

새신라는 에너지와 즐거움이 있는 주회, 새롭고 다양한 행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가족과 같은 유대감을 기반으로 항상 진일보하는 클럽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2년째 월1회씩 봉사하고 있는 성남 안나의 집에서.



지난 3월, 봄맞이 여행 중 설악산 신흥사에서.



스폰서클럽 한양로타리 내빈들과 함께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2015년)



春秋

2010-11년도 지구임원, 클럽회장, 총무 모임

고창 선운사 봄맞이 여행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동백꽃 피네-”

봄을 맞아 떠나는 춘추회의 이번 봄나들이는 다시 한 번 전북 고창 선운사 지역이다.

가는 길에 부안에 들러 변산의 적벽강과 채석강을 보는 것, 조선시대 수릿상에 올랐다는 백합죽과 조개구리로 입맛을 돋우어 별미를 체험한다.

남쪽으로 더 내려가 1991년에 시작하여 2006년에 바다와 육지를 가로질러 물막이 공사를 했다는 새만금 방조제가 2010년에서야 준공되었다고 하니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고 한다.

그 뚝길에 직선으로 34km, 탁 트인 고군산열도의 아름다운 풍광은 장관이다.

해가 기울어 서정주 시인의 고향인 고창 선운사에 당도하여 쇠구에 나오는 ‘동백꽃이 피었을까’ 궁금한 마음으로 해

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법당 가까이로 다가 선다.

일상에 지쳐 지루하던 걸음걸음이 가볍다.

선운사 골짜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었습니다.

봄이 오는 남녘에서 시의 정취에 취하고, 향기에 취하여 산사를 찾는 이의 흥을 더하게 한다.

춘추회 여행할 때 마다 각별한 주문으로 차내에서 해설하는 김상국 교수(서울한강RC)의 해설은 자료와 함께 일품이었다.



춘추회는 지난 2010-11년 회기 박영구 총재시 로타리 임원과 회장의 모임이다.

당시를 회고하면 98개 클럽, 회원 3,301명의 회원 증강과 60여만불의 재단 기부와 국내외 봉사, “다함께 봉사로” 슬로건에 동참하며 큰 역할을 했던 로타리 한가족이었다.

이번 봄맞이 여행은 버스 1대(45인승)로 일행을 꽉 채워 함께 여행하는 것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더 없이 즐거웠다.

오는 10월 13일 예정인 가을여행 역시, 1대로 떠날 예정이다.

한국로타리 90년 역사의 종주 지구로서 회원증강과 재단 기부, 국내외 봉사, 우리 로타리안의 덕목임을 일깨워주기도 한 즐거운 봄나들이였다.



글. 차차기총재 **박수부**
사진. 6지역대표 **김정균**